

Global Packaging Forecast for 2024

2024년 세계 패키징 전망

- 미국의 패키지 규제 -

T. 모리 / (주)패키징 스트래티지 재팬 이사 사장

EU에 비교해 뒤쳐져 있던 미국에서도 앞서 나가는 4개 주를 중심으로 포장의 EPR 법 시행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규제의 구체적인 중심은 지금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선행한 EU의 PPWR과 골격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2027년부터 포장 EPR법이 시행된다고 한다면, 규제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지금부터 차츰차츰 준비를 할 필요하다. 또한 미국 농산물의 집중지인 일리노이 주에서도 2024년 포장 EPR법이 상정될 전망이다.

유럽에서 EPR이 규제화될 경우 일본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폐기물 배출 저감에 성공하고 있는 일본의 에너지 회수 기술의 이점을 살리면서 소각 인프라의 저탄소화를 계획하고, 나아가 이제는 세계적 조류가 된 용기 포장의 리사이클·재사용에도 적극적으로 착수해 순환형 사회를 향한 일본의 자세를 세계에 발신해야 할 것이다.

미국 포장 업계에서는 각 주 의회의 확대생산자책임(EPR)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포장 디자인이나 포장재 검토가 시작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메인 주, 캘리포니아 주, 오리곤 주, 콜로라도 주 4개 주가 포장의 EPR을 의회에서 가결, 지사의 서명을 받아 시행 세부항목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와 메릴랜드 주 의회에서도 작년 EPR법 초안이 제안됐다.

AMERIPEN은 2024년 미국 전역의 주 의회에서 EPR 법안이 속속 상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AMERIPEN은 포장의 환경기준 제정과 관련해 주정부나 학술단체와 연계해 활동하는 업계 단체로 멤버는 소재, 포장재, 소비자, 소매 기업이나 재생업자 등이며 EUROOPEN이나 INCPEN과도 연계한다. 각 주에서 독자적으로 제정하는 EPR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PR이 복잡해지는 것을 피하고 법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미국 포장 업계에서는 미국 전역에서 기준화된 EPR 규제와 요율을 설정할 것이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여러 주에 걸쳐 사업을 전개하는 일본의 포장기업이나 브랜드 오너는 주마다 다른 규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각 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 EPR의 주요 내용과 시행 스케줄에 대해 설명한다.

메인 주

메인 주는 2002년 7월 미국 내에서 최초로 EPR법을 제정했다. 소규모 사업자를 뺀 거의 모든 포장 제품을 시장에 투입하는 소비재 기업(주로 브랜드·오너)은 사용된 포장 용기의 회수, 선별, 재생비용을 법으로 규정한 관리 조직(Producer Responsibility Organization ; PRO)에 지불 의무가 생겼으며 지불한 자금은 지자체에서 되돌려 받는다. 공청회나 공개 논평 기간을 포함해 규칙 제정 과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개시된다. EPR 프로그램의 개념적인 규칙은 이미 공개돼 있으며 2026년 가을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메인 주의 EPR 프로그램은 주정부의 환경 보호국(DEP) 전체를 감독하고, 단일의 생산자 책임 조직(PRO)을 선정, 실행 책임을 위임해 요구 평가, 연차 보고서, 투자 예산을 승인하는 구조다. DEP는 또한 '쉽게 리사이클이 가능한' 패키지의 정의, EPR 요금이나 타임라인 등과 같은 EPR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오리건 주

메인 주에서 ERP 제정이 늦어지는 동안 오리건 주는 의회가 가결하고 지사가 법안에 서명한 2번째 주가 됐다. 오리건 주의 EPR은 패키지뿐만 아니라 종이 제품이나 식품도 대상에 포함한다. 확대 생산자 책임을 완수하는 것은 메인 주와 같이 주로 브랜드 오너다. 이곳의 EPR은 플라스틱에 관한 리사이클 규칙과 목표로 하는 달성 시기가 정해져 있다. 또 대상이 되는 모든 패키지에 에코·모듈레이션을 설정해 리사이클성이 용이한 포장의 효율을 낮춰 설정하고 있다. 오리건 주의 환경품질국(DEQ)은 여러 PRO를 승인하고 EPR 비용의 설정과 징수, 대상 제품이 확실하게 리사이클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대상이 되는 포장제품의 생산자는 2025년 7월까지 PRO에의 비용 지불 준비를 완료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 오리건 주의 EPR 비용은 오염 저감 프로그램의 작성, 재생 자원 폐기물의 회수 액세스 포인트의 확대, 폐기물 배출 방지와 재사용 조성 제도, 농촌부나 원청지대의 수송 비용 보조, PRO 및 DEQ의 관리비용, 주민 교육 등 오리건 주 내의 EPR 시스템 구축에 사용된다. 오리건 주의 EPR법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 제정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 11월에는 주요 규칙이 승인될 예정이다. 이어 모든 규칙도 2024년 내 공표를 목표로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콜로라도 주

콜로라도 주는 2022년 6월 패키지의 EPR법을 제정한 미국에서 3번째 주가 됐다. 2023년 5월 콜로라도 주 공중위생환경국(CDPHE)은 NPO 법인 Circulation Action Alliance(CAA)를 PRO로 선정했다.



CAA는 EPR의 수행 관리와 EPR의 대상이 되는 생산자가 컨플라이언스 의무를 완수하도록 지도한다. 2025년 7월 1일 이후 포장제품 생산자(브랜드 오너)는 PRO에 참가하지만 개별적으로 프로그램 계획서를 제출하고 법률을 엄수해야 한다. CAA는 패키지에 사용하는 소재의 재활용률과 최저 재생원료 함유율을 설정한다. 효율은 EPR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 비용을 모두 더하도록 설정됐다. 콜로라도 주의 EPR 자문위원회는 EPR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올해 초부터 모임을 가졌으며, CDPHE는 외부의 컨설턴트와 계약해 EPR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장생산자 의무를 수립하고 요구를 청취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캘리포니아 주는 포장 EPR법을 제정한 미국의 4번째 주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EPR법은 모든 일회용 패키지와 플라스틱 용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Cal-Recycle은 캘리포니아 환경보호청(CalEPA)의 한 부문으로, 캘리포니아 주가 관리하는 모든 유기 폐기물의 처리, 리사이클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있다. Cal-recycle은 PRO를 감독·협력해 요구 평가 및 실시 프로그램 입안, 재활용률 결정, 필요에 따라 기술 지원을 실행한다. EPR 대상이 되는 포장생산자는 2027년 1월까지 PRO에 가입하고 EPR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EPR법은 대상이 되는 모든 포장재료를 2032년까지는 리사이클하거나 퇴비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상이 되는 모든 플라스틱의 리사이클율은 2028년까지 30%, 2030년까지 40%, 2032년까지 65%로 의무화돼 있다. 대상이 되는 생산자는 PRO의 지도 하에 2032년까지 플라스틱의 사용 중량을 25% 줄이고 플라스틱 사용수도 25% 낮추는 것이 의무화됐다.